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48 2002. 3. 302~332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송성자 · 정문자 **

본 연구는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 31명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을 30시간 시행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달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대상자들의 행동변화 목표가 집단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취된 정도를 분석함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비 동일 비교집단설계를 사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측정영역은 자아존중감정, 가정생활, 대인관계, 감정통제 등에 관한 것이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에게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변화 값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참여자들이 설정한 행동변화 목표에 대한 기대수준을 초과하여 성취함으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증되었다.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0-C00172).
** 송성자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문자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서 언

최근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예방과 사회적응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은 증가하고 있어 더욱 많은 학자들의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 보호국(1998)의 자료에 의하면 소년비행은 93년부터 97년까지 4년 간 35.8%가 증가함으로서 소년범죄율은 전체 범죄 증가율(14.2%)보다 높은 것을 보이고있다. 그리고 학생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비행유형은 폭력, 교통사범, 절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 비행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법무부, 2001, 23). 한국에서는 16세 이상의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 재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1989년 7월부터 소년법 제32조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법제화하고 수강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사건은 최근에 대폭 증가하고있다(법무부, 2001: 12). 대부분의 청소년 수강명령 프로그램들은 비행청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고 수강명령을 수행하는 기간에 학교적응, 재비행 예방과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집단상담과 개별상담, 심성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2001: 246)가 전국 21개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집행프로그램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보호관찰소에서는 주로 토요교실을 수강명령 집행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있고, 평일의 프로그램과 방학동안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비행청소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집행 프로그램 위탁기관은 주로 사회복지기관 또는 상담관련기관이며, 위탁기관들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있다. 예로서 태화임상사회사업연구(태화사회복지관, 1995),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사례집(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도, 1994), 상담사례연구와 상담활동 보고서(서울특별시동부근로청소년회관, 1997), 서울보호관찰 실무연구 논문집(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2001) 등에 발표된 연구들은 비행청소년의 특징적인 행동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비행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적지 않은 연구논문과 학위논문들은 비행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감소와 자아존중감 회복이나 향상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재비행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

설을 검증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문제행동을 규정하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즉 연구자 또는 프로그램 계획자 중심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서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원하는 행동변화의 목표를 직접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한 이론과 접근법의 효과성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수강명령을 받은 대부분의 비행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죄에 대한 처벌의 형태로서 타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약한 참여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변화과정에 동참하게 하고 행동이 변화된 이후에는 변화된 행동을 유지 또는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과제이다. 비자발적인 청소년들의 참여동기를 높이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자하는 목표는 참여자들이 중요시하고 변화하기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를 측정할 때 참여자들은 좀더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문제행동이 변화된 것을 유지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참여에는 청소년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직접·간접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결중심치료 접근법을 적용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이들의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양적, 질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비행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집단치료 프로그램 모형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려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비행청소년들의 행동특성과 자아존중감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서 개인의 성격, 가정, 학교, 친구집단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류종관·강숭호(1996: 241.)는

일반청소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이 약하고, 신경질적 경향이 높으며, 현실문제에 대하여 대처보다는 회피하는 성향이 있고, 사회규범을 지키지 않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고,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학교 교사와 친구 그리고 선후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상균(2000: 116~118)은 청소년의 학교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공격성, 충동성, 자아존중감,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가족구조의 결손, 가족갈등의 경험정도, 학업태도, 비행친구와의 접촉정도, 사회·심리적 학교환경 등을 보고하였다.

비행청소년의 특성은 영역별로 세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심리·정서적인 특성으로서 충동적인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과 낮은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개념(엄명룡, 2000: 257), 가정관련 특성으로 가족구조의 결손보다는 부모의 지지와 통제기능과 친밀한 유대관계(엄명룡, 1997), 의사소통의 형태(김준호 외, 1989: 137~139), 학교관련 특성으로서 학교성적과 공부에 대한 압력, 교사의 태도(주옥한, 1995), 비행친구의 영향으로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익섭·김근식, 1999)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과 청소년비행과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낮은 자아존중감이 직접적인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상호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는 경우 부도덕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낮은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한 Hewitt(1970: 37~38)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대인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며,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먼저 대화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려고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적응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쉽게 분노하고 비판하지만 다른 사람의 비판에 예민한 것을 지적하였다. Kaplan(1980:172)은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비행과 낮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인간관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설명하였다.

비행청소년의 특성으로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국내의 연구논문과 석·박

사학위논문에서 청소년비행과 낮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검증한 한 것은 적지 않다(민수홍. 1996. 최태산·홍경자. 1997. 홍봉선. 1997. 조아미. 1999). 이들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욕구충족을 위한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문제원인을 다른 사람과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포기하기 쉽고, 어려운 과정보다는 쉬운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비행행동의 유혹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욕구충족을 위한 노력이 실패하거나 비행행동을 하였을 경우 부모, 학교 교사,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처벌을 받게되고, 더욱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아통제력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그들은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으며, 눈앞의 상황에 몰두하기 쉽고, 좌절감이 분노로 표현되어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욕구충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욕구충족을 위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이론과 선행연구들에서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은 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문제행동의 감소와 낮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함께 다루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본다.

2. 비행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치료 접근이론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내지 집단치료를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적고 대부분 수용시설에서 타의에 의해 참여하거나 처벌의 하나로서 집단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자발적이고 참여동기가 약하고 관심이 적다. Berg와 Kelly(2000 : 16~18)는 보호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전통적인 심리 치료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하고, 내담자가 가지고있는 강점,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희망과 목표를 실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접근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해결중심치료(Solution-focused therapy) 접근법은 치료자 중심적인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보다는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안을 구축해가도록 돕는 내담자 중심적 접

근법으로서 한국에도 1980년대 후반부터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접근법은 가족복지 서비스 기관, 정신건강 센터, 상담소, 공공사회복지 서비스기관, 아동복지 기관, 교도소, 수용시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즉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치료에서 해결중심치료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해결중심치료 이론의 주창자인 De Shazer(1985, 1988), Insoo Berg(1994) 그리고 De Jong(1997)의 기본가정은 모든 인간에게는 강점과 장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능력과 자원을 갖고 있으며, 성공적인 경험을 생각할수록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전략으로 클라이언트의 강점 및 장점 그리고 성공적이었던 경험을 계속 탐색하면서 이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접근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손상된 자아존중감이 회복 내지 향상됨으로 문제해결능력이 배양된다고 믿는다. 또한 작은 변화를 탐색하여 인정하고 칭찬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용기를 줌으로써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주고, 작은 변화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한다(허남순 · 노혜련 역, 1998. Berg & Miller, 1992).

해결중심치료 접근은 목표 지향적인 접근법으로서 내담자들이 중요시하고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며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해나가는 과정에 개입한다. 언어의 사용은 주로 해결 지향적 질문, 긍정적인 인정과 칭찬, 내담자와의 협동적인 관계발전을 기초로 해결방안 구축을 위한 대화, 불명확한 의미를 명료화하면서 새로운 의미부여 등이 있다. 문제해결방안을 구축해 가는 해결중심치료 접근의 특징적인 질문기법(송성자, 2001: 187)으로는 ①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상상해보도록 하고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돕는 기적질문, ② 상호작용의 상황적인 것을 경험하고 대안적인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관계질문, ③ 클라이언트의 성공적인 경험과 강점을 발견하기 위한 예외질문, ④ 클라이언트의 문제, 목표, 진전 등의 정도와 상태를 1부터 10까지의 임의적인 숫자로 측정하여 사정하고 평가하는 척도질문, ⑤ 힘든 문제를 극복한 것에 관하여 인정하고 격려하는 대처질문 등이 있다.

3. 비행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의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수강명령집행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것과 협력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있으며,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목

적은(이병기 · 노성호, 1995: 136~137) 긍정적인 자아상의 확립, 재비행의 예방,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유도하는데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은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해석, 강의, 역할극, 레크레이션, 인간관계훈련, 준법정신, 윤리 · 도덕 · 가치관교육, 성교육 등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수강명령집행은 주로 집단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엄명룡(2000), 이익섭 · 김근식(1999), 박광만(1999), 김기동(1999), 김상균 외(1997)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행동변화를 검증하였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행동변화를 위한 목표설정과정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욕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적용한 접근이론과 접근법을 파악하기는 힘든다.

해결중심치료 접근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은 이영분(1995), 정문자(1995) 이정은(2000) 등 적지 않으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송성자(2001: 417)는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집단생활의 적응, 자아존중감 향상, 재비행 예방, 사회재적응 능력향상 등을 목표로 하며, 해결중심치료 접근법을 적용한 집단치료 프로그램(1주 2회씩 10회)을 실시한바 있다. 사전 · 사후검사와 프로그램을 종결한 이후 6개월 후에 추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의 목표를 성취함으로 해결중심치료 접근법을 적용한 집단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바 있다. 그러나 결과 평가에서 주관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조명숙(1999), 최혜경(2000), 서국희(1997) 등의 논문이 있다. 이들은 사전에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으로서 공통적인 행동문제를 집단 프로그램의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해결중심치료의 특징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집단프로그램 실시 초기단계의 회기 중에 내담자들이 중요시하는 문제가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해결중심치료 접근법의 하나인 10점 척도질문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다. 이 연구들은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변화된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였으나 대상자들이 실제로 자기-평가 척도질문법에 응답한 자료만을 사용함으로서 주관적인 평가의 인상이 강하고 객관적

인 평가의 한계를 갖고있다.

해결중심치료 접근법을 사용하는 많은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은 그 효과성을 어떻게 검증하는 가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각국의 많은 실무자들은 해결중심치료 접근법 적용결과에 대한 효과성과 내담자의 만족 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미국 보험회사와 정부 역시 단기적이며 효과성을 인정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Gingerich(2000: 477)는 해결중심치료 접근의 효과성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 즉 접근의 결과로서 내담자가 좋아졌다는 것에 관한 논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해결중심접근법에서 내담자가 변화하기 원한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내담자가 변화하였다고 인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근거로 결과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미국 밀워키 해결중심단기치료 센터 본부에서 1980년대부터 실시한 추후조사 결과에서는 6개월 내지 18개월 이후 추적조사를 함으로서 치료목표가 성취된 것의 유지와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1986년에는 1,600사례 가운데 72%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치료자와 내담자들로부터 효과적인 것에 관한 많은 보고는 있었으나, 최근까지 통제집단을 사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Gingerich(2000: 478)는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는 수강명령 집행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어 집단 프로그램에 비자발적인 비행 청소년들 자신이 중요시하며 변화하기를 원하는 문제행동을 변화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경험을 하도록 할 때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자아존중감이 회복 내지 향상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그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결중심치료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결중심치료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목표달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목적과 참여자들의 목표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1. 용어 정의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객관적 자료 분석은 비행청소년들의 일반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낮은 자아존중감, 가정생활에서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감정통제의 어려움의 4개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자료 분석은 집단프로그램 참여자들 자신이 문제로 지적함과 동시에 변화하기를 원하는 행동으로서 자신감 향상, 화내는 것 감소, 이른 귀가, 일찍 일어나기, 부모와의 대화시간 증가의 5개를 행동변화 목표로 설정하고 성취정도에 관하여 자기- 평가보고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는 것이다.

비행청소년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수강명령이나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은 청소년을 말하고, 수강명령은 일정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이고 봉사활동은 도로청소나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행동은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문제로서 지적하고 변화하기를 원하여 변화목표로 설정한 행동을 의미한다.

2. 집단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본 집단 프로그램은 해결중심치료의 기본가정과 접근전략 및 기술을 적용하여 초기단계에서 참여자들이 문제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문제행동의 감소를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참여자 본인들이 설정한 행동변화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경험을 하게되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그리고 문제행동의 변화에 대하여 동료, 부모와 형제, 치료자의 인정을 받게되면 변화된 것을 유지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01년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1주일에 3회씩 총 10회를 실시하였으며 매회 소요된 시간은 3시간이었다. 실험집단은 31명으로서 4개의 소집단으로 무작위로 구성하였고, 각 집단은 각 1명의 치료자와 보조자가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집단프로그램은 전체 10회를 5단계 집단발달 단계로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준비과정에는 보호관찰소 담당직원과의 면접을 통하여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일

반적인 성향,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집단구성원들의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한 내용은 측정도구와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제1단계(1회기)는 자아인식에 관한 사전검사, 프로그램 안내 및 관계형성, 제2단계(2~3회기)는 목표설정과 자기발견, 제3단계(4~5회기)는 자신과 동료의 작은 변화 확인, 제4단계(6~8회기)는 변화의 유지 및 발전계획, 제5단계(9~10회기)는 목표성취 평가와 변화를 공식화하기 등을 목표로 하였다. 각 단계의 프로그램 목적과 진행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집단 프로그램의 진행내용

회기	목표	프로그램 내용 및 접근기술
제 1 단계 (1회)	오리엔테이션: · 사전조사 실시 ·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협조적 관계형성 · 프로그램 진행 관련 규칙결정	·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진행방법을 설명 · 수용 · 지지 · 격려 · 편안한 분위기 조성과 자연스럽게 자기표현을 하도록 하는 집단치료자와의 관계형성 · 규칙을 정하기 - 참여자들과 의논하여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규칙과 보상을 결정 · 메시지 전달 - 세션이 끝나기 전에 각 참여자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 전달 · 과제주기 -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싶은 것 생각하기
제 2 단계 (2~3회)	목표설정과 자기발견: · 자신의 문제확인 · 자신의 변화목표설정 · 부모의 기대 이해 ·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 발견	· 변화하기 원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 자신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무엇인가? · 기적질문, 예외질문, 척도질문 사용하여 목표설정 · 목표성취에 대한 기대점수 설정 · 참여자들의 관심, 강점, 장점, 문제 등에 관하여 발표 · 집단의 실질적 지도자에게 역할을 주고 협조요청 · 메시지 전달 - 참여자들의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여 인정과 칭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전달 · 과제주기 - 자신과 동료의 작은 변화 발견하기
제 3 단계 (4~5회)	작은 변화 확인과 강화: ·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 · 작은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인정 · 집단원 상호간에 강점 · 장점 인정과 지지 ·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확인	· 자기 자신의 작은 행동변화, 새로운 시도,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1점 향상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집단동료의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하여 발표하고, 치료자와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격려 · 자신의 행동변화에 대한 부모와 가족의 긍정적 반응을 관찰하여 발표 · 매 회기마다 1명의 자원자가 동료들의 발표를 요약하여 기록하고 발표 · 메시지 전달 - 각 참여자들의 변화노력을 인정과 칭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전달 · 과제주기 - 자신과 동료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기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 관찰하기

- 계속 -

회기	목표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방법
제 4 단계 (6~8회)	변화의 유지 및 발전 계획: · 자신의 꿈과 생활계획 · 내적인 감정과 생각 표현 · 작은 변화 · 성장을 발견하여 확인 · 강화 · 유지 · 확대	· 5년~10년 이후의 꿈과 희망을 생각하고 발표 ·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발표 · 편지 쓰기- 가장 힘들었을 때 힘이 되어준 부모 또는 가족에게 사과와 감사의 편지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를 상상하여 쓰기 · 후퇴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 관한 토론 · 부모와 전화상담- 참여자들의 노력, 장점, 변화,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에 관하여 부모에게 알려줌. · 메시지 전달 - 변화를 위한 노력과 성공적인 경험을 인정과 칭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전달 · 과제 -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고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을 관찰하기
제 5 단계 (9~10회)	목표성취 평가와 변화를 공식화하기: · 구체적인 생활계획 · 자신과 동료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하고 상호간에 지지 · 참여자들의 변화에 대한 부모의 인정과 지지 · 변화에 대한 부모와 가족의 반응 확인 · 결과 평가 · 사후조사	· 부모 또는 가족들이 참여자들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관찰하여 발표 · 1년 이후와 5년 이후의 생활계획 · 결과 평가-자기 자신과 동료의 변화를 평가, 치료자와 보조자가 변화노력과 변화한 행동에 관하여 새로운 의미부여 · 변화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 각 참여자들의 변화와 성장을 인정 · 칭찬 · 격려하는 칭찬카드를 치료자가 작성하여 부모에게 전달 · 참여자의 부모에 대한 감사 편지를 부모에게 전달 · 종결식 - 집단별로 가장 많이 변화한 참여자 3명씩을 추천하여 시상

3. 조사 도구 및 측정

1). 측정도구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비행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인은 낮은 자아존중감, 가정생활에서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감정통제의 어려움과 관련된 행동의 4개 영역이다. 자기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감정통제 및 자기통제, 대인관계와 역기능적인 행동에 관한 것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기-보고 결과평가질문(Youth Outcome Questionnaire Self Report 2.0/ YOQ-SR 2.0) (Wells et

al, 1999) 전체 64개 문항 가운데 감정통제와 대인관계와 관련된 11개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행동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기가족치료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문제해결확인 측정도구(Child/Teen Solution Identification Scale)(Kral. 1989) 38개 문항가운데 YOQ-SR 2.0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가정생활과 감정통제에 관한 6개 문항만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4개의 영역에서 문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10개, 가정생활 5개, 대인관계 6개, 감정통제 6개로 전체 2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14~18세의 청소년 47명(여자 11명, 남자 3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증한 이후 본 조사를 위해 척도를 재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 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는 .85이었다.

2).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 효과측정을 위한 준거틀과 목표성취 측정

본 연구에서는 해결중심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Gingerich의 연구설계를 사용하였다. Gingerich(2000: 479)는 효과성 연구를 위한 연구설계로서 ① 통제집단 사용과 단일사례 보고 측정, ② 종결시기에 표적행동과 기능 변화에 대한 만족정도를 내담자가 보고, ③ 종결시기에 결과에 대한 내담자 자기-평가와 치료자의 평가, ④ 추후조사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접근기술은 해결중심치료의 핵심적인 접근법으로서 목표설정, 기적질문, 척도질문, 예외질문, 회기 중 휴식과 메시지 작성, 메시지 전달 기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목표성취를 측정하기 위한 10점 척도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설정한 행동변화 목표성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해결중심치료 접근법의 하나인 10점 척도질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시작단계에서 목표로 설정할 때 그 당시의 상태를 1점으로 하고, 목표가 완전히 성취된 상태를 10점으로 하여 임의로 척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척도질문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과 종결시기에 참여자들이 자신의 변화정도와 목표 성취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점수가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4.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표본추출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000년 12월에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청소년 가운데 보호관찰소의 처음 출석일에 출석한 53명 중 수강명령을 받은 31명 전체를 실험집단으로 하고, 봉사명령을 받은 22명 전체를 비교집단으로 하였다.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5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을 받았고, 봉사활동을 받은 청소년은 도로청소나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50시간 이상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이다. 실험집단에 대하여는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은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처분종류, 학력, 죄명, 범죄 회수, 부모 동거여부 등을 기준 변인으로 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연령은 17세 정도 이였으나 비교집단에만 14-15세가 6명이었다. 학력은 실험집단은 주로 중학교 재학이거나 고교 재학생이었으며, 비교집단은 주로 중학교 중퇴와 중학교 재학으로서 학력에 차이가 있었다. 죄명은 실험집단에서는 특수 절도, 도로 교통법 위반, 폭력행위가 두드러지고 비교집단에는 폭력과 특수 절도가 많은데 이들의 특수절도는 실제적으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절도를 포함하고 있다. 두 집단은 절도와 폭력행동이 50%이상을 차지하고있는 것이 유사하였다. 범죄회수도 실험집단은 80% 이상이 초범이었으나 비교집단은 50%가 초범으로 두 집단에는 차이가 있었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68% 정도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31%정도가 편부모 가족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두 집단이 유사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2〉에서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을 때 연령, 학력, 범죄회수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고, 죄명과 부모동거여부에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 사전 종속변인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3〉에서 t-검증을 한 결과 종속변인으로 한 4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도가 $p<0.05$를 초과하여 두 집단이 사전검사에는 통계적으로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교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2〉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류		실험집단(n=31) 빈도(%)	비교집단(n=22) 빈도(%)	카이제곱 검정 유의도
연령	14-15세	0	5(22.7)	p=.006
	16-17세	25(80.6)	10(45.5)	
	18-19세	6(19.4)	7(31.8)	
학력	중학교 중퇴	1(3.2)	7(31.8)	p=.008
	중학교 재학	10(32.3)	10(45.5)	
	중학교 졸업	0(0.0)	1(4.5)	
	고교 중퇴	1(3.2)	0(0.0)	
	고교 재학	19(61.3)	4(18.2)	
죄명	도로교통법	6(19.4)	1(4.5)	p=.401
	환각물질 흡입	1(3.2)	2(9.1)	
	사기	1(3.2)	0(0.0)	
	자동차 관리법	1(3.2)	0(0.0)	
	절도	4(12.9)	2(9.1)	
	특가법 위반 도주	2(6.5)	0(0.0)	
	특수 절도	10(32.3)	11(50.0))	
	폭력 행위	6(19.4)	5(22.7)	
	청소년보호법위반	0(0.0)	1(4.5)	
범죄 회수	초범	25(80.6)	11(50.0)	p=.035
	재범	6(19.4)	11(50.0)	
부모동거여부	부모	21(67.7)	15(68.2)	p=.106
	편부	8(25.8)	2(9.1)	
	편모	2(6.5)	5(22.7)	

〈표3〉 실험·비교집단간 사전 종속변인의 동질성에 대한 t-검정

하위 척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율
자아존중감	실험	31	31.68	5.02	-.049	51.00	0.63
	비교	22	32.36	5.09			
가정생활	실험	29	18.83	2.95	0.06	50.00	0.95
	비교	22	18.78	2.66			
대인관계	실험	30	21.60	2.91	0.77	50.00	0.45
	비교	22	21.00	2.62			
감정조절	실험	30	19.17	2.78	0.36	34.18	0.72
	비교	21	18.81	3.84			
총 점	실험	25	91.28	14.54	-0.23	43.00	0.82
	비교	21	90.95	16.27			

5.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방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은 객관적 자료 분석과 주관적 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개관적 자료 분석은 낮은 자아존중감, 가정생활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감정 통제의 어려움의 4개 변인에 대하여 사전·사후검사결과를 양적 분석하고, 사전·사후검사의 평균간의 차이에 관한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s t-test)을 하였다. 유의도 수준은 단측 검증 수준으로 하였다.

주관적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초기의 회기 중에 설정한 목표의 성취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eswell, J.(1994: 13)의 질적 연구 계획 모델을 사용하여 질적 조사방법과 양적 조사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질적 조사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는 인식론적인 이론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자의 접근에 대한 참여자의 반응 또는 환류를 사용하는 참여자 확인방법, 참여자와 치료자를 면접하여 이중으로 확인하는 삼각측량 방법(Gehart, Ratliff & Lyle, 2001: 266) 등을 사용하였다.

사전·사후검사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1회기와 10회기에 치료자가 직접 설명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주관적 자료로서 질적 조사를 위한 자료는 참여자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집단프로그램 진행 과정기록, 자기 자신과 동료들의 변화에 관한 보고, 부모와 가족이 참여자들의 변화에 관한 보고, 참여자 자신의 목표성취에 대한 자기-평가보고, 치료자들의 평가, 추후조사자료 등을 포함하였으며, 모든 관련자료는 치료자와 보조자가 직접 수집하였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동변화 목표는 집단에서 동료들과 함께 논의과정을 거쳐 설정하고, 자기-평가는 동료들과 치료자의 인정과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치료자가 전화상담을 통해 부모에게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Ⅳ.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수강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은 객관적 자료 분석과 주관적 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한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함으로 효과성 여부를 평가하려고 한다.

1. 객관적 자료 분석과 해석

객관적 자료분석은 4개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사전·사후에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들의 사후검사 점수평균의 변화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t-검증을 한 것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t검증을 한 것이다.

1). 자아존중감 측면에서의 변화 검증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은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에서 31.5점이 사후검사에서는 33.6점으로 기록하여 2.1의 향상을 보였으며,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 역시 사전검사에서 32.7이 사후검사에서 34.3으로 1.6으로 높아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의 향상정도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나 실험집단의 향상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존중감 점수를 비교할 때 분명한 것은 자신감 향상을 위한 적절한 목표와 방법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된 다는 사실이다.

〈표4〉 두 집단간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검사 비교

집단	처치	n	평균	표준편차	t 점수	자유도	p	대응차
실험	사전	28	31.50	4.93	-2.84	27	.005	-2.14
	사후	28	33.64	4.96				
비교	사전	21	32.71	4.93	-2.47	20	.023	-1.62
	사후	21	34.33	4.25				

2). 가정생활 측면에서의 변화 검증

가정생활의 문제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소속감, 가족과 친척과의 친밀

성, 신뢰, 친구 데리고 집에 가기, 형제들과의 관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는 18.8점과 18.7점으로 변화가 없는 반면에 실험집단은 17.9점에서 18.9점으로 1.00점 향상되어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이 향상된 것은 10회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회 전화상담을 통하여 부모에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부모의 역할 그리고 참여자들의 장점과 변화노력에 관하여 상담한 것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가족생활 측면의 점수차이를 볼 때, 가족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적절한 목표와 방법으로 구성한 해결중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들은 부모의 입장과 기대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좀더 긍정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부모들은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좀 더 하게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5〉 두 집단간의 가정생활 사전·사후 검사 비교

집단	처치	n	평균	표준편차	t 점수	자유도	p	대응차
실험	사전	25	17.92	2.94	2.33	24	.014	1.00
	사후	25	18.92	3.41				
비교	사전	22	18.78	2.66	.148	22	.883	0.01
	사후	22	18.69	3.49				

3).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변화 검증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의 다툼, 분명하게 말하는 것, 규칙을 지키고 어른의 기대에 맞게 행동, 쉽게 실망과 포기, 친절하게 말함,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 등을 질문하였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사는 각각 21.6점과 21.8점으로 약 0.2점 정도가 변화한 반면, 비교집단의 경우 21.0점과 21.3으로 0.3점으로 두 집단 모두 소폭의 변화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대인관계의 문제들에 대한 측정도구가 참여자들 자신이 행동변화의 목표로 설정한 내용과 상대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일반적인 문제로 구성된 요인과 프로그램에서 실

제적이며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표6〉 두 집단간의 대인관계 사전·사후 검사 비교

집단	처치	n	평균	표준편차	t 점수	자유도	p	대응차
실험	사전	27	21.55	2.95	-.47	26	.322	-.22
	사후	27	21.78	3.11				
비교	사전	21	20.95	2.67	-.54	20	.594	-.33
	사후	21	21.28	3.13				

4). 감정통제 측면에서의 변화 검증

감정통제 어려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화나는 것을 참는 것, 감정이 자주 변화, 실망스럽거나 지루해도 잘 견디는 것, 미리 생각하고 행동, 인정받기 위해 참는 것, 참다가도 욱하고 폭발하는 것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집단의 감정통제 사전·사후검사 결과 18.9점에서 20.3으로 1.4점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비교집단은 18.7점에서 19.4로 0.7점으로 향상되었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되지 못했다.

감정통제 변인은 실험집단의 참여자들 스스로가 충동적인 행동의 자제를 목표로 한 것과 일치하며, 참여자들의 감정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하였던 본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7〉 두 집단간의 감정통제 사전·사후 검사비교

집단	처치	n	평균	표준편차	t 점수	자유도	p	대응차
실험	사전	26	18.92	2.68	-2.04	25	.026	-1.35
	사후	26	20.27	3.21				
비교	사전	20	18.65	3.87	-1.01	19	.325	-.70
	사후	20	19.35	3.07				

4개 변인에 대하여 두 집단간의 변화정도를 비교하여 측정한 결과 자아존중감, 가정생활, 감정통제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고, 대인관계변인에서는 소폭의 변화만이 나타났다. 비교집단에서의 변화는 자아존중감만이 의미있게 나타났으나 실험집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3개 변인에서는 더 이상 후퇴는 하지 않았으나 변화는 매우 적었다.

5). 사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 차이에 대한 t-검증

〈표8〉에 의하면 4개의 종속변인은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p<.05$ 수준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성장과 변화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 증거를 제시하고있다.

〈표8〉 실험·비교집단간 사후 종속변인의 차이에 대한 t-검정

하위 척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율
자아존중감	실험	28	33.64	4.96	-0.51	47.00	0.37
	비교	21	34.33	4.26			
가정생활	실험	25	17.92	3.41	-0.78	46.00	0.19
	비교	23	18.70	3.50			
대인관계	실험	28	21.64	3.13	0.61	48.00	0.29
	비교	22	21.09	3.19			
감정조절	실험	27	20.19	3.17	1.09	47.00	0.08
	비교	22	19.23	2.94			
총 점	실험	24	136.42	14.87	-.041	43.00	0.46
	비교	21	138.29	15.66			

객관적인 자료분석은 4개 종속변인들의 사전·사후 변화정도는 $p<.05$수준에서 보았을 때 실험집단에서 자아존중감, 가정생활, 감정통제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고 대인관계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표8〉에서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에 4개의 종속변인 모두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실험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의 증거를 제시한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집단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평가한다.

2. 주관적 자료 분석과 해석

주관적 자료분석은 참여자 자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변화하고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취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사후 그리고 추후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참여자들 자신이 행동변화 목표로 설정한 자신감 향상, 화내는 것 감소, 이른 귀가, 일찍 일어나기, 부모와의 대화시간 증가의 5개 변인에 대한 목표성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작단계에 참여자들이 목표를 성취하고자하는 기대점수 측정, 종결시기에 자기-평가한 성취점수 측정, 변화된 행동의 유지와 발전상태에 관하여 추후 조사하여 측정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려고 한다.

1) 목표성취에 대한 효과성 검증

프로그램 초기단계에서 참여자들이 목표를 성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점수는 전체 평균 5.6점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5.6점 정도가 성취되면 자신들이 변화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고, 부모들이 변화를 인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종결시기에 참여자들은 행동변화목표 5개변인의 전체평균 6.3점을 성취함으로서 초기에 설정한 목표점수 5.6점보다 0.7점을 더 성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달성의 기대 수준을 초과하여 성취한 것이다.

자신감 향상에 관한 것은 6.9점 향상됨으로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많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나는 것을 참으며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평균5.8점으로서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시하였던 행동이다. 늦은 귀가시간의 행동변화가 평균6.4점을 성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모와의 대표적인 갈등요인이었다. 이것은 부모들이 참여자들의 행동적이며 가시적인 변화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었다고 본다.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기회와 시간이 증가한 변

인은 평균6.2점 성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실제로 가정생활에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변화한 것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자신이 설정한 행동변화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을 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과거에는 부모의 신용을 상실하여 고민하였으나 귀가시간이 일러지고, 외박 횟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함으로 부모가 변화를 인정하고 신뢰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목표의 성취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결시기에 자기-평가한 것을 소집단에서 발표하고 동료들과 치료자들로부터 인정과 확인 받도록 하고, 치료자들은 각 부모 또는 가족들에게 전화로 변화정도를 보고하였다. 가족들이 참여자들의 문제행동 변화정도에 관하여 보고한 것과 참여자들이 보고한 자기-평가 내용과는 거의 일치하였으며, 본인보다는 부모들의 평가가 참여자들 보다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부모들은 종결 이후 변화된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후퇴할 것에 관하여 염려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강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이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문제행동으로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행동변화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된다.

〈표9〉 참여자들의 행동변화 목표의 성취정도

행동변화 목표	n	성취점수평균	표준편차
자신감 향상	28	6.86	2.24
화내는 것 감소	27	5.81	2.32
이른 귀가, 외박자제	28	6.39	2.56
일찍 일어나기	28	6.12	2.83
부모와의 대화시간 증가	28	6.20	2.02
전체평균	28	6.28	1.49

* 10점 척도사용
10점- 초기단계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성취된 상태
1점- 목표를 설정한 시점이며 목표가 전혀 성취되지 못한 상태

2). 추후검사: 변화행동의 유지와 발전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행동변화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3개월 이후와 9개월 이후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3개월 이후인 5월은 참여자들의 복학 또는 진학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기이고, 9개월 이후인 11월은 변화행동의 유지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추적조사는 31명을 4개의 소집단으로 구성한 집단가운데 부모와의 통화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보고한 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1개 집단 8명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변화유지와 발전을 확인하기 위해 10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시작당시 참여자들의 문제행동의 상태를 1점으로 설정하고 문제행동의 변화목표가 최대로 성취된 상태를 10점으로 하였다.

추적조사결과 변화된 행동의 유지와 발전상태는 종결시기, 3개월 이후, 9개월 이후에 자신감 향상은 7.38→ 7.43→ 6.00점으로 3개월 이후에는 약간 향상되었다가 9개월 이후에는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강점과 장점에 대한 인식과 부모와 가족의 인정과 관심을 기초로 하는 자신감이 3개월까지 잘 유지하였다가 9개월이 지난 이후 1.43점이 낮아졌으나 더 낮아지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자신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화내는 것 감소는 5.86→ 5.56→ 9.0점으로 3개월 이후 약간 하향되었다가 9개월 이후에는 3.44점으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화를 내고 싸움을 하게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짜증을 많이 내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었다. 그러나 자신감이 향상되고 부모와의 대화가 증가하면서 관심을 받게되는 변화가 화내는 것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른 귀가는 5.50→ 6.14→ 9.80점으로, 3개월 이후에 0.64점이 향상되고 9개월 이후에는 3.66점으로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늦은 귀가와 외박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부모들에게 전화하였을 때 참여자가 귀가시간이 일러지고 외박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녀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저녁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던 것을 자제하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일찍 일어나기는 4.25→ 4.43→ 7.60점으로 3개월 이후는 약간 향상되었으나 9

개월 이후에는 유의한 발전을 보였다. 이것은 이른 귀가와도 관련이 있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면 새벽에 집에 들어가 오전 늦게까지 잠을 자는 행동이 문제 이였으나 9개월 이후에는 일찍 귀가하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유형이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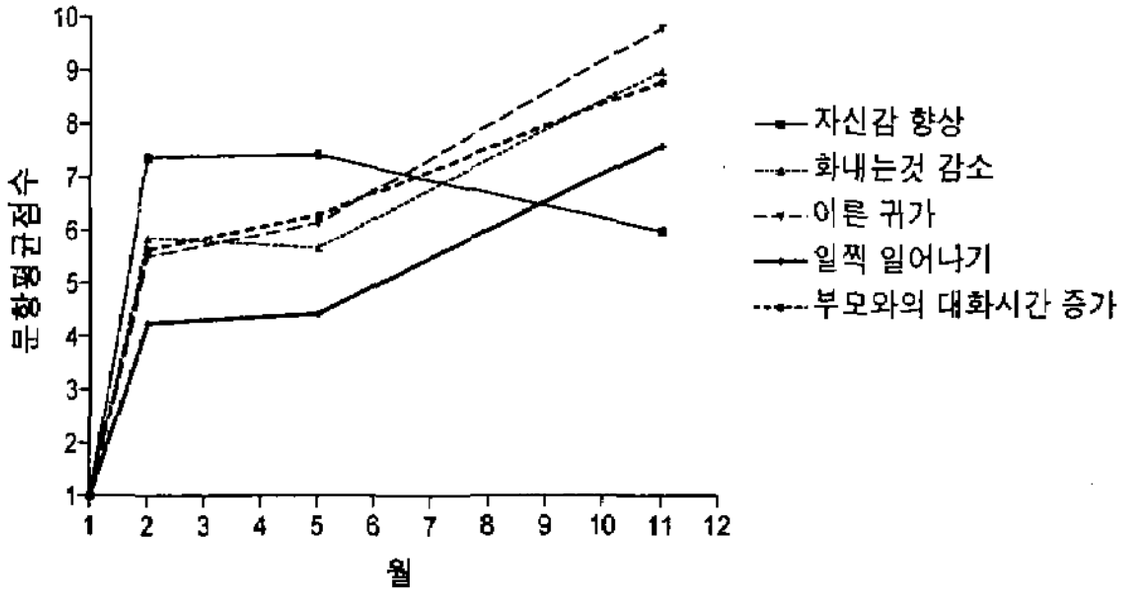
부모와의 대화증가는 5.63→ 6.29→ 8.80점으로 3개월 이후와 9개월 이후 계속해서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전화하였을 때 부모들은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고 있었고 생활태도에 만족하는 이유는 예전보다 참여자와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행동변화목표로 설정한 5개 변인들이 3개월 이후에는 소폭의 유지와 향상이 있었으나 9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집단프로그램의 목표로서 성취된 행동변화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 즉 해결중심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이 설정한 행동변화목표가 성공적으로 성취되는 경험을 할 때 변화한 것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고 하겠다.

〈표10〉 종결이후 변화유지와 변화에 관한 추후조사

문항	자신감 향상			화내는것 감소			이른 귀가와 외박자제			일찍 일어나기			부모와의 대화시간 증가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시작시기	1.00	0.00	8	1.00	0.00	8	1.00	0.00	8	1.00	0.00	8	1.00	0.00	8
종결시기	7.38	1.92	8	5.86	1.57	7	5.50	2.39	8	4.25	2.71	8	5.63	2.97	8
3개월 이후	7.43	2.07	7	5.67	1.63	6	6.14	1.68	7	4.43	2.88	7	6.29	2.50	7
9개월 이후	6.00	3.74	5	9.00	0.71	5	9.80	0.45	5	7.60	2.41	5	8.80	1.10	5

〈그림1〉 종결이후 변화행동의 유지와 발전 상태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강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 31명을 대상으로 2001년 1월과 2월에 총 10회에 걸쳐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변화에 집단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성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 분석과 주관적 자료 분석의 2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은 객관적 자료분석과 주관적 자료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효과성 여부를 설명하였다.

객관적 자료분석은 비행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낮은 자아존중감, 가정생활에서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감정통제의 어려움의 4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구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평균간의 차이에 관한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자료 분석을 위해 집단프로그램 참여자들 자신이 문제로 지적함과 동시에 변화하기를 원하는 행동으로서 자신감 향상, 화내는 것 감소, 이른 귀가, 일찍 일어나기, 부모와의 대화시간 증가의 5개 문제행동을 변화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성취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목표성취에 대한 기대정도 측정, 목표성취정도 측정, 변화된 행동의 유지와 발전상태를 측정한 자료를 분석했다.

이상과 같이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여부를 검증한 연구결과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검증 결과

객관적 자료 분석은 두 집단간에 4개 변인에 대하여 변화정도를 비교하여 측정한 결과 $p<.05$수준에서 실험집단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 가정생활에서의 문제, 감정통제의 어려움의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나 대인관계의 문제변인은 소폭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으나 실험집단의 변화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사를 실험 및 비교집단간에 독립표본에 대한 t검증을 한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자료 분석결과 참여자 자신이 설정한 5개변인의 행동변화 목표에 대한 성취정도는 성취기대점수 평균5.6점보다 높은 평균6.3점을 성취함으로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였다. 특히 자신감 향상은 6.9점을 성취함으로서 가장 많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후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변화된 행동을 유지 내지는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객관적 자료와 주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4개의 종속변인은 집단프로그램의 실시 이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설정한 목표는 5개변인 모두가 성취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이 수강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변화와 행동변화 목표의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효과성 검증의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2) 주관적 자료분석에 대한 함의

객관적 자료 분석에서 문제행동의 변화정도는 약하게 나타났고, 주관적 자료 분석에서는 행동변화 목표가 참여자들의 기대보다 높게 성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객관적 측정도구는 비행청소년들의 일반적인 문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주된 요인의 하나라고 본다. 그러나 주관적 자료 분석방법은 참여자 자신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변화 목표와 성취기대점수를 직접 설정하였고, 집단프로그램에서 그 내용을 주제로 다룬 점이 성취도를 높인 주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자료분석 방법은 내담자 자신이 설정한 행동변화목표에 대한 성취정도를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으로서 과학적인 방법에 한계성이 있다. 그러나 목표로 설정한 문제행동은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회기마다 실제적으로 다루고 확인할 수 있는 주제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고, 매 회기마다 목표의 성취정도를 참여자 자신과 동료들이 평가하고, 각 참여자들은 목표행동과 관련된 과제를 받음으로 실제로 가정생활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성취정도 측정방법은 주관적이지만 프로그램진행과정에서 내담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신의 목표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목표성취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하는 등의 개입방법이 된다. 그리고 종결시기에 자기-평가는 소집단에서 발표를 하고 동료와 치료자들의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성취정도 측정은 실제적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추후조사에서 참여자 본인이 보고한 것을 부모와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3) 추후조사 결과

추후조사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행동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참여자들은 집단프로그램 종결 이후 3개월이 지난 이후 변화수준을 유지하였고, 9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는 자신감은 소폭으로 하향한 반면에 화나는 것 감소, 이른 귀가, 일찍 일어나기, 부모와의 대화시간 증가의 행동은 높이 향상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은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프로그램 시작 시기보다 향상된 수준에 있었다. 성장하고 변화된 행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이것은 행동변화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도록 하며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도록 개입하는 접근방법, 부모가 참여자의 변화를 인정하고 예전보다 관심 있게 돌보아 주도록 한 접근방법 등을 의도적으로 적용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변화된 행동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여한 것은 무엇보다 비행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동변화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적으로 성취하도록 돕는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 본 연구가 일반화할 수 있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집행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초석이 된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적용한 접근법과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 분석방법과 주관적 자료 분석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후속 적인 연구에서 다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제언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1). 프로그램 내용과 그 효과성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에 연구 대상자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시킬 때 참여동기가 유발되고 프로그램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와 측정방법에 있어 과학적이며 신뢰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분석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것을 반영하는 신뢰성 있고 과학적인 측정도구와 측정방법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2). 본 연구는 남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범죄별로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범죄를 함께 다루었고, 서울 지역에서만 시행한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동. 1999. "복합비행 청소년 대상의 단기집단상담 사례연구." 《동부아동상담소 상담사례연구집》.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 265~280

김준호·노성호·고경임·최원기. 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김상균 외. 1997. 《학생비행 예방 및 선도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노성호. 1994. "한국의 청소년비행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5권 2호, pp.145~187.

류종관·강숭호. 1996.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행동특성 비교연구". 강원대 교육연구. 제6권. pp. 211~244.

민수홍. 1996. "개인의 자아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박광만. 1999.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단기집단상담 사례연구." 《동부아동상담소 상담사례연구집》.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 pp. 145~167.

법무부. 2001. 《보호관찰 심사분석 2000》

법무부 보호국. 1998. 보호소년통계 13집.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2001. 《보호관찰 실무연구 논문집》

서국희. 1997. "해결중심 단기상담이 고등학생의 문제해결력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1994. 《동부아동상담소 상담사례연구집》

서울특별시동부근로청소년회관. 《1997. 상담사례연구와 상담활동 보고서》

송성자. 2001.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법문사

엄명룡. 1997. "청소년가출 및 가족기능과 가족체계 유형과의 상호관계". 《한국가족 복지학》.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창간호 pp.133~178

엄명룡. 2000.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청소년비행 예측 요인의 발굴."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2호. pp.254~288.

이백철·김현중·송성자. 2000. 《비행청소년의 사회 재 적응훈련 프로그램 개발연구》. 청소년 개발원.

이병기·노성호. 1995. 《수강명령제도와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상균. 2000. "청소년의 학교비행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사회복지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0. 제15호. pp.109~132.

이영분. 1995. "청소년 자녀문제 치료를 위한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 모델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pp. 21~39.
이익섭 · 김근식. 1999. "청소년비행 과정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통권37호. pp.381~405.
이정은. 2000. "만성 질환자 자녀를 대상으로한 해결중심 집단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정문자. 1995. "십대소녀의 가족치료에 적용된 해결 중심적 치료기법 및 치료내용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pp.1~20.
조명숙. 1999. "가출청소년을 위한 해결중심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조아미. 1999.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창간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pp.115~126.
주옥환. 1995.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학교환경중심으로》. 형사 정책연구원
최태산 · 홍경자. 1997.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심리적 변인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교육심리학회. pp.291~ 322.
최혜경. 2000. "해결중심 단기상담을 바탕으로 한 집단상담에서 내담자가 지각하는 중요사건과 회기의 변화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태화사회복지관. 1995. 《태화임상사회사업연구》
홍봉선. 1997. "비행청소년 자아개념강화를 위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개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Berg, I. K. 1994. *Family based services: A solution-focused approach.* New York: W. W. Norton
Berg, I. K. and Kelly, S. 2000. *Building Solutions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New York: W. W. Norton
Creswell, John W. 199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 quantitative approaches. London:* SAGE Publications.
De Jong, P. and Berg, I. K. 1997. 해결을 위한 면접. 허남순 · 노혜련 역. 학문사
De Shazer, S. 1985. *Keys to solution in brief therap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De Shazer, S. 1988. *Clues: Investigating solutions in brief therap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Gehart, D. R., Ratliff, D. A. & Lyle, F. R. 2001. "Qualitative research in family therapy: A substantive and methodological review." *Journal of Marital & Family Therapy.*

Vol. 27. No. 2.

Gingerich, Wallace. 2000.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A review of the outcome research". *Family Process*, Vol. 39, No. 4, 2000. pp.477~497

Hewitt, John. 1970. *Social stratification and deviant behavior.* New York: Random House

Kaplan, Howard.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Kral, Ron. 1989. *Child/teen solution identification scale.* Brief Family Therapy Center

Levy, K. 1997. The contribution of self-concept in the ethology of adolescent delinquent.

Mecca, A., Smelser, N. & Vasconcellos, J. (Eds.). 1989. *The social importance of self-esteem.*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adgett, D. K.. 199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 역. 서울: 나남출판.

Wells, M., Burlingame, G., Lambert, M. & Reisinger, C. 1999. *Youth outcome questionnaire-self report(Y-OQ-SR2.0).* American Professional Credentialing Service.

The Efficacy of Solution Focused Group Therapy Program with Juvenile Delinquency Under Probation

Song, Sung Ja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Chung, Moon Ja

(Professor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finding out the effectiveness of Solution-Focused Group Therapy Program in reducing delinquents' problematic behaviors and increasing their self-esteem, impulse control, communication with the parents and bettering their daily life habits.

Thirty one male delinquents under probation from a Probation Center in Seoul were chosen and given a Solution-Focused Group Therapy for 30 hours. For a comparison purpose another 31 male delinquents were chosen from the same Cent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tems were selected and used from Rosenberg's Self-Esteem Scale, Youth Outcome Questionnaire Self Report 2.0, Brief Family Therapy Center-Child/Teen Solution Identification Scale. Participants' and parents' self-reports on participants' changes and session progress records were also used for qualitative evaluation.

The results showed some positive changes in participants' self-esteem, self-control, communication style with parents, and daily life habits. No illegal act was reported after nine months upon this Program, which posits this type of Solution-Focused Group Therapy Program as a viable solution for the prevention and recidivism of juvernile crimes.